

THE CLUE
다들 뭐가
있냐

제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프레오픈 호평



17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린 제3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 프레·프레오픈에서 국내외 기자들이 서울 여대 한글연구소가 공동제작한 '한글술'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남도문화 이렇게 멋졌다 디자인에 새롭게 눈뜨다

"남도의 다양한 문화 원형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석한 흥미로운 전시였다." 17일 프레·프레오픈을 통해 첫 선을 보인 제3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18일~11월4일)가 국내외의 디자인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성공대회를 예고했다.

프레오픈 내외신 취재진 200여명 몰려 48일간 빛고을 디자인 대향연 높은 관심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레오픈과 오후 2시 내외신 기자들을 초청한 프레오픈을 잇따라 개최하며 48일간의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특히 이날 프레오픈에는 내외신 취재진 200여명이 참석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국립현대미술관 배순훈 관장과 제8회광주비엔날레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예술총감독, 디자인비엔날레 홍보대사인 일본 미용전문가 잇코(Ikko)씨도 참석해 대회의 위상을 높였다. 개막을 하루 앞두고 이날 전시장을 둘러본 참석자들과 취재진들

은 일상의 모든 것을 소재로 한 다양한 디자인 작품에 큰 관심을 보였다. 주전시장인 비엔날레전시관과 남구 양림동 이장우 가옥, 수피아여고의 전시장을 돌며 다양한 작품을 감상했다. 일본의 디자인 잡지 'axis'의 가추토쉬 이시바시 수석 편집장은 "다른 디자인 전시는 기능적이고 상업적인 면을 강조하는데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는 이론적인 배경에 핵심을 뒀다"면서 "다양한 주제를 지닌 디자인 작품을 보는 재미도 있고, 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전시"라고 평했다. 또 이탈리아 디자인·랜선 잡지 '디자인블'의 최리지 기자는 "의,

식, 주 등 카테고리를 나눠 전시 주제가 명확한 데다 한국의 디자인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면서 "디자인 전시는 밀라노-런던-도쿄순으로 반복되고 모방하는 경향이 있는데, 광주는 새로운 전시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리는 개막식에는 세계 3대 자동차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기아자동차 디자인총괄 부사장), 하와이대학 클라크 르벨린 건축대학장, 이탈리아 그래픽디자이너 마시모 피티스, 세계적 가구 디자이너 스완 콤포치안, 아르테니카사 창립자이자 타미네 자반박, 그래픽 및 제품 디자이너 조셉 푸 등 전문가와 언론인 700여명이 참석한다. 또 이날 오후 7시30분에는 비엔날레 전시관 앞마당에서 황지우 전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총장(시인)이 대본을 쓰고 이상우씨가 연출한 연극 '변' 공연이 마련된다. 문성근, 이승우, 정성용 등 연기와 배우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춘향전을 선보인다. /오광록기자 kroh@

문광부, U대회 예산 조기 지원 난색

광주시-한나라당 정책간담회...“R&D특구·클린차 부품산업 적극 지원”

한나라당이 광주시의 최대 현안인 광주R&D특구 지정, 클린디젤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등에 대해 적극 지원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 예산 지원에 대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난색을 표명해 정부 차원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와 한나라당은 17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광주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정몽준 대표최고위원과 박재순·송광호 최고위원,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등 한나라당 지도부와 각 부처 국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정몽준 대표와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등이 광주R&D특구 지정을 돕겠다고 나선데 이어 지식경제부 유수근 연구개발특구단장도 "R&D특구는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며, 클린디젤자동차 부품산업도 예비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밖에 CGI(컴퓨터 형상이미지)센터 건립 예산(100억원) 추가지원과 광주시 교육청의 일해수련원 건립(220억원), CCTV 300대 설치(37억원) 등의 내년 예산 반영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광주시가 요청한 2015하계 U대회 사업비(40억원)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적극 지원을 약속한 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예산 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

유병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 산업실장은 "대구 유니버시아드, 방콕 대회 등 사례로 미뤄 국고지원은 2011년부터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며 "또 내년 출범할 대회 조직위

설립은 물론 운영을 지방비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비 지원에 대해 "올해 예산 요청액(700억원) 보다 낮은 200억원으로 편성된 것은 별관 논란으로 700억원이 불용될 것을 감안한 것이다"며 "이달중 문광부 방침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면 전담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나라당은 또 국립광주도서관 건립, 복합형 교육문화타운 등도 적극 지원키로 했으며, 광주 학생독립운동 기념회관 이설이나 광산교육청 신설 등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처 의견이

제시됐다. 정몽준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광주시가 개최하는 2015하계U대회는 대한민국 전체에 젊음의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며 "한나라당과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광대 광주시장은 "어려운 역사를 겪어 왔기 때문에 환경이나 기반시설은 열악하지만 21세기 들어 문화와 예술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광주도 경제제 기반을 갖추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정몽준 대표가 광주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박광대 광주시장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이 17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열린 '한나라당-광주시 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나란히 시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유익량기자 jwi@kwangju.co.kr

정몽준 대표 “기아 타이거즈 처럼 광주도 신바람 나길”

‘광폭행보’ 첫 지방방문 광주 선택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이 당 대표 취임 후 '광폭행보'에 나선 가운데 첫 지방 방문지로 광주를 찾아 눈길을 모았다.

정 대표의 이번 방문은 한나라당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광주·전남에서 본격 '구애'에 나선 것은 물론 당내 친이·친박 계파의 틈바구니에서 확실한 계보가 없는 그가 '현장'에서 동력을 얻기 위해 현장밀착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 대표는 17일 광주시청서 열린 '한나라당-광주시 정책협의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통해 "첨단산업, 문화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광주시를 돕기 위해 이 자리를 찾았다"며 분위기를 띄웠다.

정 대표는 이어 "광주시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광산업, 자동차, 전자산업 등이 차질없이 진

행되길 바란다"며 "광주가 발전하면 대한민국의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U대회 지원법이 통과돼 기쁘다"며 "내년부터 U대회에 맞춰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대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갖겠다"고 다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한나라당에 대한 광주 지역의 관심과 애정을 우회적으로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마무리 발언에서 "한나라당은 광주 지역 현역의원 없다"며 간접적으로 아쉬움을 토로 한 뒤 "비록 원외이기는 하지만 광주 지역 당협 위원장들에게 심부름을 시켜주시면 당에서 열심히 챙기겠다"고 당부했다.

오랫동안 대한축구협회장을 맡는 등 스포츠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정 대표는 "지역 연구구단인 기아타이거즈가 승승장구하고 있어 경기

장에 한 번 가보고 싶다"며 "침체됐던 기아 타이거즈 1위에 오른 것처럼 광주시도, 대한민국도 신바람 났으면 좋겠다"고 덕담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정 대표와 당직자들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같은 정 대표의 행보와 관련해 당 안팎에서는 그동안 다소 노쇠하게 비쳤던 지도부의 이미지를 역동적인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이자, 당내 대권 후보로서 윤신의 족을 넓히려는 다중 포석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정 대표의 광주 방문은 이명박 정부 집권 후 상대적으로 소외된 호남 지역의 민심을 챙기려는 차원이 것 같다"며 "당 내에서 특별한 세력이 없는 정 대표로서 모든 것을 걸고 열심히 뛰는 것 외에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www.gwangju.go.kr

제9회 곡성·심천 축제

THE 9TH GOKSEONG SIMCHEONG FESTIVAL

2009.9.25(화)~9.27(목)

심천강기차마을

주최: 곡성군, 주관: 곡성·심천축제추진위원회

세일바이크 30% 할인에 드립니다.

● 입장권서 가격: 5,000~10,000 / 1인용

- 기차마을(9:00~17:00) 4,000원 → 2,800원
- 심천강(9:00~17:00) 4,000원 → 2,800원
- 2인용(9:00~17:00) 8,000원 → 5,600원
- 3인용(9:00~17:00) 10,000원 → 7,000원